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장학월보

2011
제220호(통권439호)
6

■ 장학특집 / 국혼을 심는 나라사랑 교육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초대석 / 학습클리닉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 육 지 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 책 방 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 점 과 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특색과제 |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1

C·o·n·t·e·n·t·s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6 제220호(통권 439호)

02 권두언 • 역사는 가슴으로 새겨야 합니다 / 고영진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교육 칼럼 • 교육지원청에 거는 기대 / 이훈
08 특집 / 국혼을 심는 나라사랑 교육 • 청소년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 이미경
• 나라사랑 교육의 방향과 실제 / 김선규
• 국혼을 심는 동심이 꽃피는 학교 / 오용규
• 학교형 통일교육모듈 적용을 통한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 / 홍장성
24 앞서가는 경남교육 • 운동하는 학교
26 좋은 수업 다지기 • 생각나누기로 사고력 키우기 / 정혜원
• 발달적으로 적합한 만 3세아의 수준별 학습 지도 / 황숙희
30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독일의 역사 교육에서 배우다 / 구현숙
• 2011. 초등연구학교 운영 평가 시스템 도입 / 김정희
40 명품학교, 명품교육 • 컨설턴티와 컨설턴트 Win-Win 전략을 통한 교수 · 학습방법 개선 / 정원보
• 굴려라! 굴렁쇠 · 넘어라! 줄넘기 달려라! 인라인스케이트 / 신계성
•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 김동진
•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영산배움터 / 조재수
•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 실현 / 김이천
• 동요 부르기를 통한 고운 심성 기르기 / 배재권
57 전문가 초대석 • 시험불안으로 시험 망치고 학습의욕마저 사라져가는 아이들 / 변경오
59 참여마당 • 교 원 – 가족의 사랑과 함께한 '스승의 날' / 김용운
– 수업연구대회 '축제의 장' 승화를 위하여 / 조영봉
• 학부모 – 작은 학교만의 특별한 운동회 / 최연심
• 학 생 – 나의 선생님 / 신종원
65 향기나는 서가 • 바보에서 영재가 된 한 아이 / 이강재
67 지상갤러리 • 기와무더기 / 안종혁

▶ 표지사진 – 백승희(진주 용우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7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6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6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비 매 품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2

권두언 / 교육감

역사는 가슴으로 새겨야 합니다

역사는 가슴으로 새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높이 추모하며 거룩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서해안에서는 나라를 지키던 군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북한의 포탄이 날아오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유구한 5천년의 문화는 찬란하였지만, 우리의 역사는 시련과 고난과 투쟁과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이민족에게 숱한 굴욕과 설움을 당하기도 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강점에 나라 잃은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이 민족, 이 나라의 역사는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3

교육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청소년들의 역사의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선조들의 뜻을 다시 한 번 헤아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져나가는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역사는 가슴으로 새겨야 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학생들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영존과 국가 번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경남교육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경상남도교육감

교육감 동정

01

02

04

03

05

06

01 39보병사단과 업무협약체결
02 '경남의 山' 출판수입금 전달-통영자생원
03 법무부와 업무협약체결 - 김해석봉초등학생과 법 질서 확립 결의
04 스승의 날 기념 마산서중학교 1일 교사 체험
05 어버이날 독거노인 방문 카네이션 및 도시락 선물
06 제1회 교육감배 바둑대회 개최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5

07

08

10

09

11

12

07 통영교육지원청 – 나의 꿈에 날개를 다는 진로직업여행
08 경남유아교육원 – 가족문화체험 공연과 함께 유니세프 아동 돕기
09 낙동강수련원 – 긍정리더십교육 전개
10 밀양교육지원청 – Wee센터 개소식
11 창원교육지원청 – 2011. 사회통합 교육멘토링 담당자 협의회 개최
12 합천교육지원청 – 합천군청소년관현악단 스승의 날 축하 연주회 개최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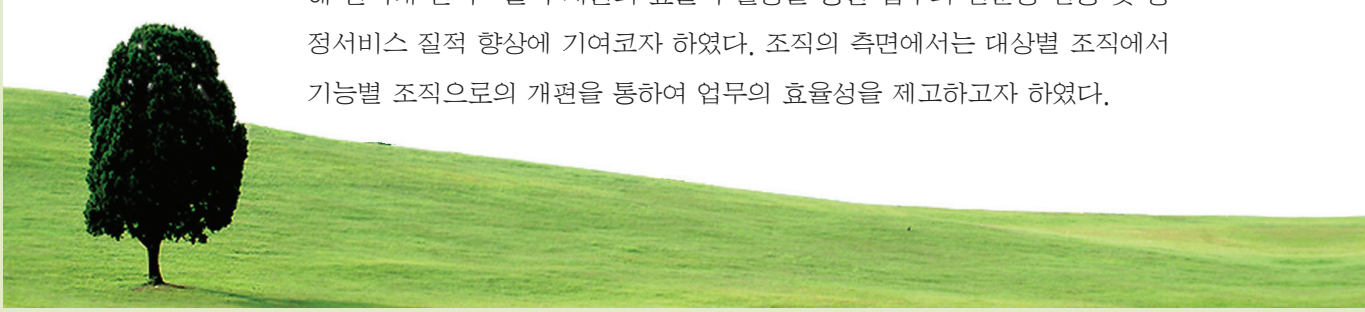
교육지원청에 거는 기대

이 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과장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과 지역교육청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교육자치의 오랜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위주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이었던 지역교육청을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새롭게 재편한 것으로 1972년 교육법 개정으로 광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교육청이 설치된 이래 실로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편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학생·학부모·학교현장 지원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지역교육청-본청-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며 셋째, 실효성이 낮은 관리·감독업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사무는 거점교육청 운영을 통해 권역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 신장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대상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2010년 9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어 교육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점검 · 감독 위주의 장학을 요청 장학(컨설팅) 및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기존 장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감사업무는 본청으로, 평가업무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교육훈련 업무는 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는 등 기관 간 기능 재정립과 아울러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직을 대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지원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제 교육지원청이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과 조직문화 풍토는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업무에 현장지원 업무가 부가되어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력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하루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감독적 위치에서 벗어나 현장 공감형 지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육수요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역할자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교육환경과 시대적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교육지원청』이 출범할 당시보다 지금이 어쩌면 더욱 더 중요한 시기다. 학생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명칭에 걸맞게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훗날 기능 개편의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성공여부는 현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자 책임이므로 생각을 바꾸어 학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역할기대와 교육수요자 만족도, 으뜸 경남교육의 실현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을 기대하는 바이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8

청소년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이 미 경
통일교육원 교수

1. 들어가기

통일문제와 관련, 지난 2010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우선 반세기 이상 우리민족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분단고착의 결정적 계기가 된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통일이 실현가능한 현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편 지난 해 발생된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 등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단 상황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을 인식시키며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시점으로서 통일준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통일인식은 이 같은 분단극복의 요구 상황에 크게 조응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 통일의식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분단극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인해 통일문제의 관심과 필요성 인식은 통일의 열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통일의식은 통일의지 약화 혹은 통일준비 소홀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려될 만하다. 이런 현상은 연령이 낮을수록 두드러지며 특히 통일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주의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97~'10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통일의 관심이 '97년 71%→'10년 57.3%; 통일의 필요성은 '97년 85%→'10년 66.6%)와 북한에 대한 이해, 인지도는 감소한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북한인지도는 '02년 37%→'08년 18%; 북한주민에 대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9

한 무관심은 '04년 12%→'08년 27%)되었다. 한편 청소년들은 안보의식이 약화됨과 동시에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적 혼란('08.6 조사에서 6.25전쟁발발연도를 아는 청소년은 43%, 6.25를 남침으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9%차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학교통일교육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제고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므로 그들의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정도와 수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모색돼야 한다.

2. 청소년 통일의식의 특징

청소년 통일의식의 특징은 일반 성인에 비해 통일문제를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통교협 '청소년통일의식조사'에서 청소년들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력강화〉 이산가족문제 해결〉전쟁위협 해소〉 한민족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외 분단비용 절감, 취업기회 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응답율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혼란을 우려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 통일교육에 있어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수용될 수 있는 통일의 필요성 논리개발과 함께 이를 확산시킬 교육의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에 기초가 되고 있는 통일이 야기할 사회적 혼란, 통일비용 등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이며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통일담론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학교통일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청소년통일의식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다.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 '10년 통일교육협의회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최초의 상기 이미지로 '전쟁, 군사'(32.7%), 빈곤(21.5%)과 같이 부정적(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4.9%,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5.1%)이며 북한주민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도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호감 45.8%, 비호감 54.1%) 이 같은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은 통일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상생공영의 모색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10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이들이 통일·북한 문제에 관한 정보 혹은 지식 습득의 통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TV/라디오,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언론매체〉인터넷〉학교수업과 교과서) 이 같은 사실은 향후 통일교육의 주요 통로로서 이 매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통일·북한관련 정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인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이 형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언론의 태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통일·북한에 대한 입장 선택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볼 때 학교통일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학생들의 통일문제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심에 부합,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발이다.

3.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통일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할 방향은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올바른 통일의식의 함양이다. 이를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은 우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통일미래 비전의 논리를 개발하여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 같은 부정적인 통일담론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다. 통일 후 일정 기간 사회혼란과 비용이 발생됐지만 확산된 자유향유, 유럽통합의 기폭제, 경제대국으로의 위상확보 등과 같은 독일통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통일의 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은 과도기적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이 발생된다는 확신 속에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통일담론이 정립돼야 한다.

특히 기존의 통일비용 논의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인식되고 있다. 통일비용은 언제, 어느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지는지 또는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의 발전 수준과 격차를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지 등에 따라 수백억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추정결과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방식과 수준에 따라 우리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통제 가능한 부담이라는 것과 함께 한시적인 통일비용에 비해 장기적인 통일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올바른 인식으로 대체돼야 한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11

또한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위주의 사고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통일이 국가 · 사회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은 통일문제가 청소년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참여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구성돼야 한다. 우선 통일은 규모의 경제적 이득(인구 · 국토 증대)과 경제활동영역확대(북방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에 따른 이득창출 등으로 국가발전만이 아닌 개인에게 취업 및 소득증대 기회확대와 같은 경제적 실리를 창출해 주는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이어 통일 미래를 청소년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결부시켜 구체화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통일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의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구상하게 하여 통일문제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교육내용이 구성돼야 한다.

이상의 통일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함양과 객관적 판단능력 신장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작성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분단극복을 넘어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과 화해협력과 안보태세 강화를 병행 추진해야 하는 이중적인 존재로서의 북한을 균형있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균형있는 북한관'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12

나라사랑 교육의 방향과 실제

김 선 규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교감

1.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229개 국가 중 영토 규모는 108위(남한)이나 경제 규모는 세계 9위이고, 반도체 생산, 철강제조 산업,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및 학교 정보화 지수 등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고 외환 보유액은 세계 7위(지난 3월말 기준)이며,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이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후 짧은 기간에 남북 분단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조국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國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21세기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나라사랑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나라사랑 교육의 방향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 교육 정책방향으로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의 실천 과제의 하나로 '국혼을 심는 나라사랑 교육 강화'를 설정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①올바른 국가의식 함양, ②역사 및 지리교육 강화, ③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각급학교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 학교(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야하며 나라사랑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올바른 국가의식 함양

교육 목적은 체험중심의 국가의식 교육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13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있다. 교육의 방향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토 바로알기 등의 교육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천적 교육활동을 통해 올바른 국가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역사 및 지리교육 강화

교육의 목적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해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함양하고 지리교육을 통해 우리 땅과 내 고장 알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세계화 및 동북아 시대의 대내외적 도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교과의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교육은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다. 체험중심의 통일 · 안보교육 강화

체험중심 통일 · 안보교육의 목적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교육과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보교육을 통해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통일 · 안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체험중심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나라사랑 교육의 실제

국혼을 심는 나라사랑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간과하기 쉬운 과제이기도 하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시 계기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별로 실천 가능한 교육 요소들을 추출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올바른 국가의식 함양

국가의식 함양은 추상적인 과제이므로 소홀히 하기 쉽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실시한다면 소기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기와 애국가 그리고 국화(國花), 국토 바로알기 등을 통한 국가의식 함양 교육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기교육 등을 통해 내면화하여야 할 것이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14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관련 교과인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음악과 등의 수업 시간과 국가의 각종 기념일과 경축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며, 학교주변 무궁화 심고 가꾸기 운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식목행사를 통해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때로는 교과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의 과제 등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신문·방송 등의 특집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①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계기교육, ②경축일 및 기념일 활용, ③무궁화 심고 가꾸기 운동, ④수행평가 과제 제시, ⑤매스컴 활용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실시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내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장차관직속기관/의정관/국가상징 및 국경일, 애국가 등 참조

나. 역사 및 지리교육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하여 3.1절, 6.25, 국치일, 광복절 등의 역사적 사건을 전후한 계기교육과 국어, 역사과 등 교과 시간에 관련 단원 수업을 등을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다. 지리교육은 우리 땅과 내 고장 사랑의 정신을 내면화하고, 특히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면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래와 같이 독도교육 강화를 안내한 바 있다.

☞ 도교육청 독도 관련 공문
- 교육과정기획과-4818(2011.3.09.) '독도교육 내용 체계 개발에 따른 활용 알림'
- 교육과정기획과-7575(2011.3.30.) '독도 전시회 관람 안내'
- 교육과정기획과-11646(2011.5.04.) '제2회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 응모 안내'
- 교육과정기획과-12238(2011.5.16.) '독도교육 자료 활용 및 전시회 안내' 등 참조

독도 관련 교육은 관련교과 뿐만 아니라 계기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별도로 할애하여 각종 교육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 관련 학생동아리나 글짓기 등 문예행사 및 각종 강연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에게는 교내 자율연수나 연수원 등의 자격 및 직무연수 등을 통하여 교과 관련 전문성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초 · 중 · 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체계 구성(2011.03.09. 도교육청 공문 참조)

독도교육 목 적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독도교육 목 표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도에 대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독도에 대한 관 심과 애정을 갖는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한다.
학 습 내 용	① 독도의 자연 환경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 ② 독도의 중요성과 독도의 역사적, 환경적, 정치 · 군사적, 경제적 가치 이해 ③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갖기의 의미와 방안 탐색	① 독도의 역사와 관련된 지도 및 문헌에 대한 이해 ②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과정과 일본 주장의 허구성 파악 ③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 주장 능력 신장 ④ 우리 땅 독도 알리기 활동의 의미와 효과적인 참여 방안 탐색	①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역사 · 지리적 및 정치 · 군사적, 경제적 의미 파악 ② 독도수호활동의 현황 파악 및 적극적인 참여 방안 모색 ③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 방안 모색

최근 역사교육에 대한 논의와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지대한 만큼 학교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①국경일 및 기념일 활용 역사교육 및 계기교육, ②관련 단원 수업 활용, ③교원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④독도관련 교육 내실화, ⑤각종 행사활동 참여, ⑥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관련 사이트 :

- 독도를 넘보지 마라 EBS 수능강사는 말한다(www.ebsi.co.kr)
- 여기는 독도입니다(www.office.kbs.co.kr)
- 동북아재단 독도연구소(www.dokdohistory.com)
- 사이버독도(www.dokdo.go.kr)
- 독도박물관(www.dokdomuseum)
- 역사광복운동본부(www.bluecabin.com.ne.kr)
- 숨겨진 한일역사(www.ko2ja.co.kr)
- 역사왜곡의 진실을 밝히자(www.hanfuture.com)
- 사이버 독도사관학교(www.dokdo.prkorea.com) 등 참조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16

다. 통일 · 안보교육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통일교육이 바로 안보교육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육군 제39보병사단과 MOU를 체결[☞관련공문 : 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12278(2011.5.16.)참조]하여 안보교육(강사활용, 자체 훈화, 학예행사 등), 자매결연, 군부대 견학, 기타 다양한 안보체험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국가관 및 안보관 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분단의 장기화가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내실화하여야 하는데 교육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①사회, 역사과 관련 단원 지도, ②남북의 창 등 각종 특집 프로그램 활용, ③통일 · 안보 관련 글짓기 등 학예행사 참여, ④통일 · 안보 현장 견학 및 체험활동, ⑤각종 강연회 및 특강 참여, ⑥각종 연수시 통일교육 관련 강좌 개설, ⑦계기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 관련 사이트:
- 한국안보문제연구소(www.kinsa.kr)
- 통일교육(www.baeoori.pe.kr)
- 인터넷평화학교(http://tongil.moe.go.kr)
-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등 참조

4. 참고 : '계기교육'에 대하여

가. 관련 공문 : 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10615(2011.04.28.)

나. 계기(契機)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명칭

다. 관련근거 :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12.23.),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경남교육청 고시 제2010-12호)

라. 실시 예시

1) 일반적 계기교육 : 국경일 등에 단위학교의 연중 학사계획에 따라 학교장(담임) 훈화, 관련 교과 등을 통한 정기적인 계기교육

※ 일반적인 계기교육 주제(예시)
- 명절 · 절기(설날, 단오, 추석)
-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기념일(식목일, 4 · 19혁명,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의 날, 환경의 날, 현충일, 6.10민주화, 6.25사변일, 한글날, 성탄절)

2) 특별 계기교육 : 교과서 또는 교육과정에 미반영 되거나 반영이 불충분한 주요 국가적 또는 세계적 사안(사건 등) 등에 대한 특별 계기교육

※ 특별 계기교육 주제(예시)
- 연평도 피폭사건을 계기로 안보의식 확립('10.11.26)
- 특별계기교육(천안함 용사 추모, 일본 대지진 관련) 실시
- 긴급 재난발생 대비 등을 위한 교육실시 재요청
- 특별교육용 자료 탑재 안내 및 활용 요청

마. 실시 방법 :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계기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1) 정기적 계기교육 :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 시간, 담임 및 학교장 훈화, 계기교육 관련 학교행사 및 학생의 현장체험 참가 등

2) 특별 계기교육 : 학교장이 직접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5. 나라사랑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경남교육

경남교육의 비전인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켜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쟁력을 길러주고, 더불어 살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에 발맞추어 꿈을 이루려는 실천의지와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더해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혼을 심는 나라사랑 교육'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관련 교과뿐만 아니라 계기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기관)별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18

국혼을 심는 동심이 꽃피는 학교

오 용 규
진주 용우초등학교 교장

본교는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국혼 교육'을 학교 특성화 교육 주제로 설정하여 실천 중심의 나라사랑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세계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약화되고 있는 나라사랑을 가슴 속에 아로새기는 '한국인다운 어린이'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 국립 대전현충원 참배로 시작된 나라사랑 체험학습 운영

5~6학년 학생 41명은 5월 15일(일) 호국 보훈의 성지 국립대 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묘역을 참배하고 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나라사랑체험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숭고한 호국 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본교는 나라사랑 실천주간(5.15~6.15)을 정하여 어린이들에게 통일을 지향하는 호국 보훈 교육을 통하여 국혼을 심는 교육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 나라사랑 실천 체험학습 교육활동 ◐

순	프로그램 명	순	프로그램 명
1	국립대전현충원 나라사랑체험학습	4	독도 지킴이 엽서 꾸미기
2	호국 보훈 교육 UCC 시청하기	5	나라사랑 광제산 종주 등반대회
3	나라 상징 태극기 · 무궁화 그리기	6	나라사랑 추모 글쓰기 공모전 참가

2. 신명나게 두드리고, 노래하며 전통을 계승하는 학교

본교는 국혼 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4~6학년의 계발활동 부서를 국악 분야 3개 부서, 독서 · 논술 분야 2개 부서, 미술 · 전통놀이 각 1개

영역씩 모두 7개 반을 조직하여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학생의 소질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풍물반과 진주검무 전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혼 교육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 전통 문화 계승 중심의 계발활동 운영 ◐

부서명	중점 지도 내용	부서명	중점 지도 내용
시 조 창	시조 창을 익혀 고유의 가락 즐기기	전래놀이	전래 놀이를 배워 친구와 함께 놀기
NIE학습	신문 기사를 활용한 역사 바로 알기	합 창	전래동요를 노래하는 즐거움 갖기
한 국 화	한국화로 매화와 난초 그리기	전래동화	전래동화 읽기로 논술 능력 기르기
사물놀이	영남사물의 가락과 장단 배우기	진주검무	진주 검무 전수

3. 나라 사랑 '남가람 체험학습' 운영

진주교육지원청의 특색 과제인 '남가람 체험학습'을 본교의 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시함으로써 충절과 예향의 정신으로 대표되는 우리 고장의 얼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내면화하고 있다.

본교 학생이 만든 창작등은 매년 남강유등축제에 전시하고 있으며 2010년 경남교육박람회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6학년 학생들은 명석각 향례에 참가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있다. 진주남강마라톤에 73명의 교육 가족이 출전하여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모두 5km를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3, 4학년은 진주 향교를 찾아 선비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소년단 활동으로 대원의 리더십 함양에 기여하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회과 관련 박물관학습과 문화재 탐방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4. 에필로그. 얘들아, 이젠 통일을 노래하자

본교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펴도록 전략을 갖고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본교 어린이의 작게는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 순국선열의 숭고한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바람직한 국가관을 기르는 나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

◑ 사진으로 보는 나라사랑 교육활동 ◐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20

학교형 통일교육모듈 적용을 통한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

홍 장 성
창원 용호초등학교 교장

1. 통일교육 텃밭을 준비하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우리 민족의 분단은 시간이 갈수록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민족의 동질성이 훼손되고, 국가 역량의 손실과 상호 불신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갈수록 치열한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민족의 번영과 선진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분단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통일교육은 반공교육(70년대)에서 통일 안보교육(80년대)을 거치면서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이 아닌 민족 번영을 함께 추구할 동반자로 보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특히 2000년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북한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말미암아, 학교교육현장은 백화점식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통일교육은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장차 미래의 통일세대가 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이념적이고 딱딱하지 않게 관심과 흥미가 생기는 방향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의도적으로 마련된 새롭고 구체적인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교과,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의 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학교교육과정 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는 '학교형 통일교육모듈'로서 구안 · 적용하여 미래 통일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마음 속에 통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21

모듈(Module)이란 일반적으로 산업 부문에서 기계 또는 시스템의 구성단위를 말하며, 기능상 성격이 비슷한 또는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조립된 덩어리를 말한다.

학교형 통일교육모듈은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을 실현할 장으로 교과 영역, 재량활동, 특별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홍보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특별히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녹아들어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의지 등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학교형 통일교육모듈이란

모듈(Module)이란 일반적으로 산업 부문에서 기계 또는 시스템의 구성단위를 말하며, 기능상 성격이 비슷한 또는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조립된 덩어리를 말한다.

학교형 통일교육모듈은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을 실현할 장으로 교과 영역, 재량활동, 특별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홍보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특별히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으로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녹아들어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의지 등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2. 통일 텃밭, 이렇게 일구고 있습니다

가. IPTV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통일교육

IPTV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학년별 도덕 및 사회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통일교육 관련 학습 요소를 추출하였다.

1) IPTV 콘텐츠, 도덕 및 사회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학습 요소 추출 개발된 IPTV 교수·학습 시나리오를 구안하고 필요한 경우 도덕 및 사회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주요 학습 요소를 추출하였다.

2) 학습 요소에 따른 학습 전략 선정, 학습 요소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학습 전략과 단원별 소요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교수·학습 시나리오의 개요를 작성하였다.

나. 또래활동 위주의 다양한 통일 체험활동 전개

1) 시사 통일 교육방송

북한사회의 변화, 세계 정세의 변화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일에 대한 내용으로 교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22

내 방송 및 학교장 훈화를 통해 IPTV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2) 통일 과학자율탐구 대회 개최

과학의 달을 맞아 실시되는 과학행사에 통일관련 자율탐구대회 영역을 신설하여 통일 도미노 만들기, 젓가락으로 만드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함양시켰다.

3) 통일 OX퀴즈 대회 및 북한체조 따라해보기

통일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지식과 북한 사회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바람직한 통일에 대한 마음자세를 가지게 하였다.

북한체조 따라해보기

IPTV콘텐츠 활용 수업 실시

4) 용호통일 캐릭터 공모

학생참여형 통일체험활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친숙한 캐릭터를 자기 손으로 직접 제작·응모하게 하여 통일체험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용호통일캐릭터 공모를 실시하여 학교 통일교육활동에 사용할 캐릭터를 학생들 손으로 직접 제작하게 하였다.

다. 가족·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교육활동 전개

1) '통일 신문' 만들기

학부모와 함께 현장체험활동을 가거나 인터넷 검색과 독서를 통해 통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스크랩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의 통일 관련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 결의대회 캠페인 활동

2)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휴업일 통일체험

학부모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휴일이나 방학 때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장소를 안내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1) 통일 결의대회 캠페인

통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통일의 방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학급별로 결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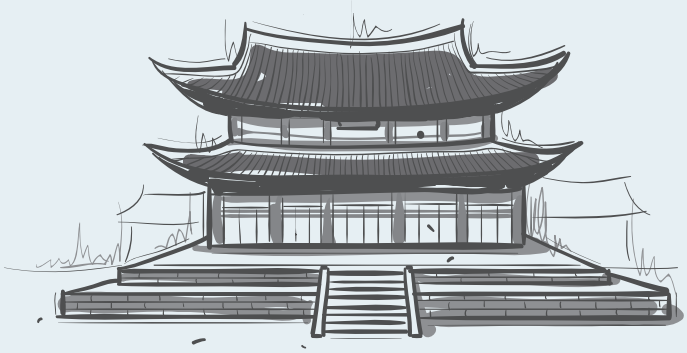
의대회를 가진 후,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올바른 통일 관련 선서문을 낭독한 후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벌였다.

2) 통일 UCC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학생들이 제작한 UCC 작품을 도내 각급 단체 및 학교에 보급하여 통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 통일 열매를 기대합니다

학교현장에서 부담 없이 교육과정 속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교형 통일교육학습모듈의 전파를 통하여 내실 있는 학교통일교육이 실현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학생들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 통일 후의 대처 능력 등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학교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통일체험 활동 전개로 통일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아울러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하는 학교

-스스로 운동에 참여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만들기-

「운동하는 학교」는 '110달기기'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통하여 지 · 덕 · 체를 겸비한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경남교육의 특색사업입니다.

- 달리기 운동으로 튼튼한 체력을 지닌 「건강한 학생 육성」
- 스스로 운동에 참여하는 「건강한 학교 조성」
- 달리기 운동 생활화로 「평생체육」기틀 마련

▶ 신체활동은 뇌 혈류량 BDNF(신경 성장 유발 물질)를 증가 시켜 전인적인간으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 존 레이티, 하버드대 교수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7 PM 페이지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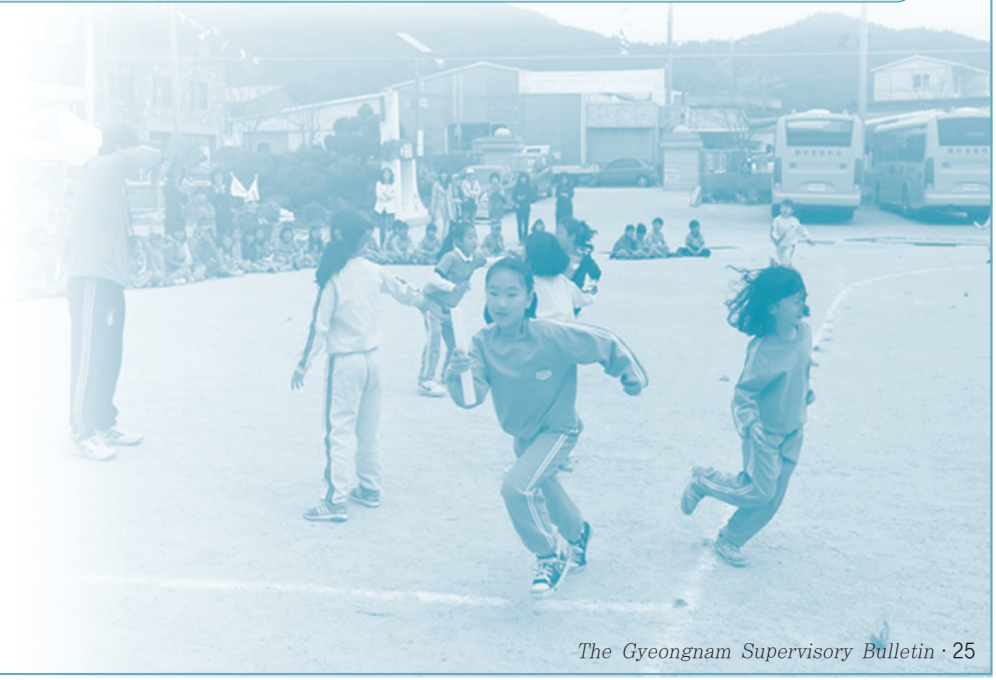
'1110 달리기 운동' 이란?

하루(1) 한번(1) 10분 이상 달리기 운동을 통하여 건강 체력 육성으로 행복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과제입니다.

달리기 효과

- 신체의 근육을 고르게 하는 전신운동입니다.
-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 체지방이 줄어들어 예쁜 몸매를 가꿔줍니다.
-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 규칙적 운동 참여시 연간 2조 8,000억원 의료비 절감 효과- '07. 10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생각나누기로 사고력 키우기

정 혜 원
김해주석초등학교 교사

1. 생각나누기란?

생각나누기는 주어진 안건을 내 생각과 견주어 그것이 비논리적임을 보여주거나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로써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학습내용에 따라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토대로 생각나누기 활동을 함으로써 국어과 학습에 흥미있게 참여하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 학생들의 읽고, 쓰고, 말하는 핵심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2. 생각나누기 적용을 위한 준비하기

교육과정 분석	기본 학습 훈련	분위기 조성
• 적용단원 추출 • 적용방법, 활동주제 추출	• 발표방법, 손신호 • 질문릴레이 • 돌아가며 읽기 등	• 그림책 읽어주기 • 일기쓰기, 독서카드 • 몸과 마음 풀기 등

3. 생각나누기 방법 익히기

가. 귀 기울여 듣고 자신있게 말해요

적극적 경청	•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기 •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듣기 • 음 ~ 그랬구나. 맞장구치기 • 무언의 메시지 전달
생각 메모	• 내 생각과 비교하며 듣기 • 중요한 말은 메모하면서 적기 • 칭찬메모 전달하기

주제 말하기	• 바른 자세로 형식없이 말하기 • 30초 말하기, 1분 말하기 • 의자나 책상 위에서 하기
대화 방법	• 짝에게 내 마음 이야기하기 • 릴레이 발표하기 • 즉석인터뷰 하기

나. 내 생각 네 생각 더 좋은 우리 생각

짝 또는 모둠끼리, 그리고 전체 친구들과 어떤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

받으며, 의견을 수렴해 가는 생각나누기 활동에는 오감으로 관찰하고 상상해서 말하기, 생각공책 쓰기 '내 생각은 이래요.' 브레인스토밍, PMI, 덧붙여 말하기, 꼬리꼬리 찾아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창문구조, 인물 인터뷰, 즉흥역할극, 생각신호등 등이 있다.

예시) 생각 신호등 놀이

• 신호등의 원칙을 이용해서 신호등의 색깔카드를 활용해서 교사가 토론을 이끌어가는 가벼운 토론식 생각나누기이다. 학년 수준에 맞는 주제로 찬반토론을 해보고, 나와 다른 의견을 들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주장하는 것을 체득할 수 있다.	
생각신호등	① 빨간색카드, 파란색 카드를 1장씩 가지고 있기 ②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에 반대하면 빨간색 카드를, 찬성일 때에는 파란색 카드를 들어서 보여준다. 이 때 결정 내리기가 힘들면 노란색 카드 들기 ③ 자신의 주장과 그 까닭을 찬반에 따라 색깔메모지에 붙이고 발표하기 ④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카드 들어 의사 표현하기

4. 생각나누기 활용 수업은 이렇게!

단 계	학 습 내 용
생각나누기 전 활동	▶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기유발 -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 활용 ▶ 내용파악 및 공부할 문제 파악 - 공부할 문제파악과 생각나누기 주제의 연관성
생각나누기 전 활동	▶ 내용파악을 위한 질문릴레이 ▶ 내 생각 정리-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생각공책, 꼬리꼬리 달아 말하기 ▶ 다양한 모둠 생각나누기활동 -창문구조, PMI, 모둠활동판 등 ▶ 전체 생각나누기-생각신호등, 물레방아놀이, 주사위놀이, 피라미드놀이 등
생각나누기 후 활동	▶ 학습내용 정리 ▶ 느낌 나누기(내용 측면 + 방법 측면) ▶ 자기평가. 모둠평가, 차시예고

5. 생각나누기 활용 수업의 효과

다양한 생각나누기 활동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자신감이 매우 향상된다. 또 생각나누기 기회확대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좋/은/수/업/다/지/기

발달적으로 적합한 만 3세아의 수준별 학습 지도

황 숙 희
김해 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최근 신문에서 앞으로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비중이 커지고, 교사의 공개수업이 의무화되는 등 교사의 수업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 '교사는 수업을 잘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다.

물론 교사는 수업을 잘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경력이 적거나 많거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공개수업을 할 때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학생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도 하며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만 3세를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만 4, 5세보다는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 3 세아에 맞는 수업에 대한 고민들이 현장에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1. 수업을 준비하며

우선 무엇보다도 만 3세의 발달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또한 교육과정 영역이 언어영역이어서 만 3세에게는 듣고 말하기영역만을 활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제한점이 있어 더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 만 3세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놀이처럼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연령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적절한 수업이 되었던 것 같다.

2. 수업을 진행하며

가. 도입

도입단계는 40분 수업의 성패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어린 연령일수록 학습활동주제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유아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일 활동주제가 '우리는 신호 안전 지킴이'이어서 우선 유아들이 오늘 신호등에 대해 학습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글자먹는 강아지를 등장시켜 신호등의 3가지 색의 글자를 먹었

더니 신호등의 3가지 색이 똥으로 나와서 유아들이 신호등이라는 주제를 유추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전개

전개단계에서는 언어라는 교육과정 영역이 활동에서 강조됨과 동시에 통합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시를 듣고 표현하고, 노래를 부르며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였다.

◈ 활동 1 - 동시를 듣고 표현해요

- 그림 및 글자를 보고 활동명을 예측해서 동시를 다 같이 읽어 본다.
- 신호등의 색에 따라 동시를 나누어 읽어보고 글자와 그림을 맞게 붙여본다.
- 모두 신호등이 되어 역할극을 한다.

◈ 활동 2 - 노래를 부르며 표현해요

- 그림 및 글자를 보고 활동명을 예측해서 이야기하고 제시된 활동방법을 예상하여 이야기 한다.
- 노래를 다 같이 불러보고 노랫말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 역할을 정해서 노랫말에 따라 활동한다.

◈ 활동 3 - 몸으로 표현해요

• 활동방법

- 그림 및 글자를 보고 활동명을 예측해서 이야기하고 '멈춰라' 노래를 같이 불러본다.
- '멈춰라' 노랫말에 따라 교사가 지시하는 신호를 보고 알맞은 신호등에 가서 서본다.

다. 평가

활동이 끝난 후 신호안전 지킴이 선서식을 하면서 유아들이 직접 신호안전지킴이 스티커를 서로에게 붙여주고 신호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Ⅲ. 수업을 마치며

이 수업을 통해 한 번 더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의 내용은 유아의 관심, 흥미, 발달 수준에 따라 선정하고, 교육활동은 유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만 3세아의 눈 높이를 맞춘 수준별 학습지도가 우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 운 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 사용자 지원 시스템 사용법 | NEIS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편에 따라 기존 NEIS 지원서비스(http://helpsys.gne.go.kr) 홈페이지가 『사용자 지원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모습으로 개편되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세대 나이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 지원을 돕고, 시·도교육청 사용자 종합지원센터와 중앙 사용자 종합지원센터 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질답하는 등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접속 방법

▶사용자 지원시스템 접속은 2가지로 가능합니다.

① 업무포털 화면에서 오른쪽 위쪽에 위치한 나이스지원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지원 시스템으로 접속됩니다.

② 주소창에 http://help.neis.go.kr를 입력하면 바로 시스템에 접속됩니다.

2. 질의 등록 하기

▶ 사용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나이스 시스템의 사용에 있어서 시스템 에러나 업무 처리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질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왼쪽의 주요업무 메뉴에서 질의응답 - 질의답변 - 질의관리를 클릭하면 왼쪽의 질문등록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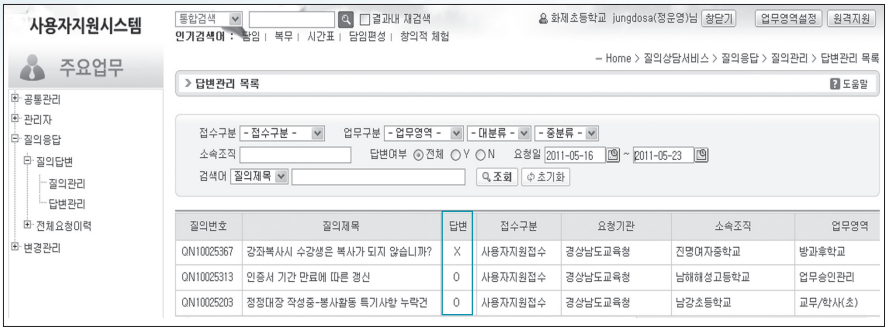
▶ 오른쪽에 있는 질의 등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등록할 수 있는 등록창이 나타납니다.

▶ 업무구분, 업무유형, 제목, 연락처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난 후 오류 내용이나 질의 사항을 입력합니다.

▶ 만약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오류 화면을 캡쳐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이곳에 첨부파일과 같이 올려야 합니다.

▶ 모든 자료 작성이 끝났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3. 답변 확인 하기



▶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질의 관리나 답변관리에서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답변 항목에 'O, X'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답변 항목에 'O'로 표시되었으면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질의제목을 클릭하면 답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을 등록하기 전에 비슷한 질문들을 찾아서 참고하면 문제를 바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질의관리나 답변관리에서 위의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 메뉴 활용

▶ 업무영역설정 : 오른쪽 위에 있는 업무영역설정 메뉴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관심 업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원 : 원격지원에서는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상담직원이 원격으로 선생님의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33

독일의 역사 교육에서 배우다

구 현 숙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사

그 나라 수도를 보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역사의식 수준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다. 통일과 영광의 상징이다. 하지만 브란덴부르크 문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홀로코스트 상기기념물(Holocaust-Mahnmal)은 '독일 역사의 양면성과 독일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독일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한다.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을 겪으면서도 혼란에 빠지기는커녕 발전을 거듭하며 20세기 산업사회에서 대국의 면모를 유지해 온 독일,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도 세계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저력을 독일의 역사 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1. 바른 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역사 교육 -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 교육

'홀로코스트 교육'이라는 말의 정의는 독일 교육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 즉 나치시대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교육이라는 직접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교육이다. 홀로코스트 교육은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정책적으로 유치원 단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9학년, 10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에 많은 사람이 "다 지난 일을 들춰 무엇하겠느냐?"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100세대가 지나도 아우슈비츠에는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며 계몽 교육에 힘쓴다고 한다. 부담스러운 과거사이지만 독일인들이 후세에게 자국의 뼈아픈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자 힘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첫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것은 당시 잘못된 정치관을 가진 몇몇의 지도층인사였다고 해도 당시 대다수의 독일인이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였거나 선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인 방법을 택해 홀로코스트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심 있는 개개인의 힘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둘째,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독일 사회에 터키인과 유고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지금이야말로 소수인종과 약자 집단에 박해를 가했던 홀로코스트 사건 교육에 많은 비

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 때이기 때문이란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신나치와 같은 극우파들의 테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홀로코스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므로 많은 국민이 이런 테러에 분노하고 걱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인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권과 평화가 살아 있는 독일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후대에 가르치는 독일의 역사교육 제도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교육제도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도 정면으로 응시하기 어려운 과거사가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집단학살은 그중 한 예이다. 우리나라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독일 역사교육의 좋은 사례를 롤모델 삼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관을 심어주는 독일의 역사수업

그동안 선택과목이라 입시에서도 저 멀리 밀려나 있던 한국사를 다시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이 한국사를 모르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일치한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과연 무엇 때문에 한국사를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명확하게 틀이 갖추어진 것 같지 않다. 또한 방법 면에서도 주입식 암기 위주의 한국식 역사수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비판의식을 갖고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우면서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역사교육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독일 현대 교육의 출발은 2차 대전 나치의 잔학상에 대한 반성의 기저 위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독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력을 강화해 지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비판의식 강한 사회인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교육관을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수업이 바로 역사과목이다. 독일 초등학교의 첫 번째 역사공부는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배우면서 시작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동네를 일주하며 유적과 유물을 직접 견학 · 관찰하고, 마을을 상징하는 문장을 그리며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어떤 역사를 간직한 곳인지 알아간다고 한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흐름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 오늘날 어떤 변화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고 한다.

고학년 역사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주제가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토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차 대전과 히틀러의 독재'에 대해 배운다면 '우리는 과연 2차 대전을 무산시킬 수 있었을까?'에 대해 토론한다. 아이들은 '제지할 수도 있었다' 와 '전쟁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란 두 가지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며 그 당위성과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토론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난다고 한다. 선생님

도 아이들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줄 뿐 일체 논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조력자 역할만 한다고 한다. 10시간 과정의 단원이면 주입식 교육은 1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독일 역사수업은 단 한 순간도 "왜?"라는 의문을 덮어두고 지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사고하며 바른 사관을 만들어가는 의식교육인 것 같다.

EBS에서 '독일 교육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다. 그 때 쿠벤 김나지움(Couven Gymnasium)학교의 부세 역사 선생님의 인터뷰에서 한 말에서 독일의 역사수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오늘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박제된 과거로만 존재한다면 역사는 가치가 없다. 그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바로 보기 위한 공부가 역사교육이다"

3. 독일의 특별한 역사교육

독일인의 역사 교육은 자신의 과거를 사실 그대로 왜곡 없이 공개하고, 그 역사의 현장들을 자유롭게 공개하고 반성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생체실험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고압과 고온과 저온에 견디는 인체를 실험하기 위해 포로를 시설에 감금하고 고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온도를 올리기도 했고, 동사를 지켜보기도 했다' 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교육하고 알리려 한다는 것이다. 흡사 다른 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세세히 파헤치는 것 같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독일인은 어쩌면 당당해 보이기까지 하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나치 독일에 학살된 50만 유대인의 위령비 앞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깊은 사죄를 표명하였다. 이 장면은 독일의 반성과 진정성을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독일인들이 끊임없이 아픈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또한 이 시대의 키워드인 '다문화교육'이 아픈 과거사를 토대로 튼튼히 자리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4.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쉰들러나 안네를 통해 과거사 교육에 노력하고 있는 독일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부각이 악행의 미화를 가져온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은폐가 아닌 또 다른 이면을 이용한 과오의 직시에서 그들의 슬기로움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도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좌·우가 흔들리는 역사교육이 아닌 그것이 자손에게 조금은 수치스럽고 보여주기 힘든 부분이라도 진실만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독일처럼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역사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기부터는 우리 역사만이라도 한쪽에 치우친 왜곡된 역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올바른 역사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의식을 갖고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홀로코스트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적 선택을 강요받을 때면 양심에 따라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바른 시민으로 길러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할 것이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36

2011.
초등연구학교 운영 평가 시스템 도입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초등장학담당

1. 목 적

가. 연구학교 업무 추진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

나. 연구학교 운영의 질적 향상과 교육적 책무성 제고

다. 연구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2. 방 침

가. 평가의 대상은 초등 연구학교(교과부요청, 타부처요청, 도자체지정)로 한다.

나. 연구학교 운영의 전 과정을 단계별(계획단계, 실천단계, 연구결과발표단계)로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과 학교별 담당 장학사(연구사)가 계획단계부터 평가에 참여한다.

라. 현장 부담 최소화, 외형적 부풀림 방지를 위하여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한다.

마. 공정성을 위하여 사이버평가, 현장방문평가, 자체평가, 참관교원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절충하여 운영한다.

사. 평가결과 우수교(상위 5% 내외)로 선정된 학교는 차기학년도 연구학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 평가결과 평균평점(백분위 점수)이 60% 미만인 학교는 향후 2년간 연구학교 지정을 배제한다.

3. 세부 추진 계획

가. 평가단 구성

1) 전문직 평가위원 : 연구학교 지도담당 장학관(사),연구관(사) 1~2명

2) 사이버 평가위원 : 도교육청 위촉 평가위원 12명

3) 참관교원 평가위원 : 연구학교 참관교원 중 10명 내외(도교육청 위촉)

나. 연구학교 단계별 평가 내용

평가단계	평 가 내 용	평가 방법	배점	평가자	평가 시기	비 고
계획단계	• 기초 연구 및 자료 수집 •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 교육과정 분석	• 사이버평가(1회)	10점	• 전 평가위원	• 5월 및 보고단계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점검 및 반성 자료로 활용함
실천단계	• 교육과정 운영 • 연구의 실천 • 연구조직 및 자원 활용 • 교수학습 전개 • 연구의 지속성 • 홈페이지 활용도	• 사이버평가(1회)	40점	• 사이버 평가위원	• 10월	
		• 현장방문평가(1회)	10점	• 전문직 평가위원	• 5월	
		• 자체평가(1회)	해당 없음	• 연구학교	• 10월	
연구결과 발표단계	• 연구 성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회 운영 • 연구결과 일반화 가능성 • 연구의 지속성 • 연구학교운영의 효과 • 연구학교운영의 진실성	• 사이버평가(1회)	20점	• 사이버 평가위원	• 11월	
		• 현장방문평가(1회)	10점	• 전문직 평가위원	• 보고회 당일	
		• 참관교원평가(1회)	10점	• 참관교원 평가위원	• 보고회 당일	
계			100점			

다. 평가 운영 방법

1) 사이버 평가

가) 평가자 : 사이버 평가위원 12명

나) 평가 방법

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새미학습의 경남초등연구학교지원센터(http://lms.gnedu.net/mr_classroom/classroom.do?classno=25712)에 탑재된 자료와 학교 홈페이지 연구학교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② 단계별 평가관점에 따른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③ 〈사이버 평가표〉 에 의해 사이버평가위원이 개인별로 평가한 것을 취합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새미학습의 경남초등연구학교지원센터 안내]

2) 현장 방문 평가

가) 평가자 : 전문직 평가위원

나) 평가 방법

① 중간지도와 연구학교 운영 결과 발표시 전문직 평가위원이 2회 평가한다.

② 중간지도 평가 시에는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연계성, 연구학교 조직 구성, 연구학교 실천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 연구학교 운영 결과 발표 시에는 학교에서 제출한 연구학교 자체평가보고서,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연구보고회 운영, 일반화 가능성, 연구학교 운영의 진실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④ 형식적인 평가를 탈피하고 연구수행의 실제 모습이 평가 될 수 있도록 평가표를 통해 평가한다.

⑤ 〈현장 방문 평가표〉 에 의해 전문직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3) 학교 자체 평가

가) 평가자: 연구학교

나) 평가 방법

① 〈연구학교 자체 평가보고서〉에 의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② 학교 자체 평가의 경우 학교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는 연구학교 운영 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학교 자체 평가는 연구학교 평가 참고자료 및 해당학교의 반성자료로 활용한다.

4) 참관교원 평가

가) 평가자 : 연구학교별 참관교원 10명 내외

나) 평가 방법

① 참관 희망을 받아 학교별 10명 내외로 참관교원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② 참관교원 평가위원은 학교홈페이지 연구학교사이트에 제공된 각종 자료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운영 결과 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표의 형식을 활용하면서 우수한 점과 소감을 적을 수 있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④ 〈참관교원 평가표〉에 의해 참관교원이 개별적으로 연구 결과 발표에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라. 우수교 및 미흡교 선정 기준

1) 우수교 : 평가결과 상위 5% 내외의 연구학교

2) 미흡교 : 평가결과 종합평점(백분위) 60% 미만인 연구학교

마. 평가 결과 활용

1) 중간년차(1/2, 1/3, 2/3) 평가 결과

- 연구학교 지도 · 지원 자료 활용
- 최종년차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최종년차(1/1, 2/2, 3/3) 평가 결과

① 우수교 : 차기학년도 연구학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 연구학교 연속 지정할 수 있음

② 미흡교 : 향후 2년간 연구학교 지정에서 배제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40

컨설턴티와 컨설턴트 Win-Win 전략을 통한 교수 · 학습방법 개선

정 원 보
거제초등학교 교장

01

02

03

01 컨설팅 수업 공개
02 컨설팅 수업 협의회
03 컨설팅 전체 협의회

Ⅰ. 씨 뿌리기 -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컨설팅 의뢰 이유)

학교 여건

컨설팅 의뢰 기관의 특징

- 거제시 거제면에 위치한 13학급, 전교생 288명, 교직원수 39명
- 초등교사 15명 중 11명(신규교사 9명 포함)이 3년 이하의 저 경력 교사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
- 수업명사 선생님 본교 근무로 4월초 신규교사 교내 수업 컨설팅 실시

교내 수업 컨설팅 후 만족도 조사(신규 교사 총 9명 대상)	
만족도 설문 내용	결과
수업컨설팅이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가?	매우 도움을 줌(100%)
교내 수업 공개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교수 · 학습모형 적용 및 수업 설계(4명, 45%)	
지속적인 수업 컨설팅을 원하는가?	원함(100%)
교실수업개선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은? - 수업 공개를 통한 전문성 신장(5명, 55%)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받는다면 어느 영역을 받고 싶은가요? - 수업모형에 대한 이론과 실제(3명, 33%))	

- 수업명사로부터 수업 컨설팅을 받기에 컨설턴트의 부담이 크고, 컨설턴티의 숫자도 너무 많음
-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마인드를 가진 컨설턴트 확보가 어려움

⇒ 그래서

- 교실수업 개선을 위하여 수업 컨설팅은 꼭 필요한 것이며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수업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낌
- 전문성과 마인드를 가진 컨설턴트 확보를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팀에 수업 컨설팅을 의뢰하게 됨

컨설팅 목표

1. 저 경력 교사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전략 수립
2. 자기 진단을 통한 실질적 수업 능력 개발
3. 컨설팅을 통한 교사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 신장(본질적 목적)

II. 싹 틔우기 -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컨설팅 수행과정)

단계	추 진 내 용
준비 문제의뢰	• 의뢰인(본교)이 자발적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신청 - 교내 수업 컨설팅 실시 후 설문지 작성 : 문제점 및 대안 추출 - 컨설팅 장학 의뢰서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제출(11명의 교사 신청) * 컨설팅 일시, 의뢰문제, 희망컨설턴트, 컨설팅 희망분야 제출
착수	• 학교별 의뢰 일정 및 컨설턴트 배정(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 학교와 컨설팅 일자 협의 - 본교 6명의 컨설턴트 배정(의뢰교사 2명 당 1명의 컨설턴트 배정 원칙)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 안내	• 컨설팅 장학 학교 요청서 제출 - 학교컨설팅업무 담당자와 대표컨설턴트의 만남을 통해 학교 일정 재협의 - 컨설팅 의뢰 주제를 자세하게 파악 • 컨설턴티와 컨설턴트의 1:1 면담을 통한 컨설팅 계획 개요 작성 - 대표 컨설턴트는 컨설팅 장학 학교 요청서에 제시된 컨설턴티들의 자료를 토대로 컨설턴티와 컨설턴트를 1:1로 배정하여 연결 - 수업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티와의 사전 협의사항을 통하여 컨설팅 관점을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여 컨설팅 계획 개요 작성 • 컨설팅 장학 세부 추진 계획서 제출(실시 2주 전까지 완료)
해결방안 실행	◐ 본 단계부터 컨설턴티와 컨설턴트 간 개별 면담에 의한 컨설팅임 ◐ • 수업 계획 단계 : 수업 전 협의(수업컨설팅의 1단계) - 교과, 단원 설정(컨설턴티) - 교과에 맞는 수업 모형 연구 과제 제시 및 컨설팅 계획 - 사전 협의 시 주의사항(컨설턴트) * 컨설턴트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컨설턴티의 생각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자 역할을 해야 함을 인지 • 수업 실행 단계 : 체계적인 수업 관찰(수업컨설팅의 2단계) 1. 교수 · 학습활동과정안 1차 협의 -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기 2. 교수 · 학습활동과정안 2차 협의 - 부분적 문제점 해결하기 3. 교수 · 학습활동과정안 3차 협의 - 수업 준비 완성하기 ※ 컨설턴티와의 On-Off Line 면담 시 요청하는 자료는 반드시 제공하며,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도 수시로 제공하여 컨설턴티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함 4. 수업 관찰의 실행(당일 수업 공개) 가. 수업 관찰 시작하기 나. 관찰내용 기록하기 다. 수업 후 학생 인터뷰 하기 라. 협의를 위한 종합 기록 작성하기

평가 및 종료	• 수업 평가 단계 :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한 고찰(수업컨설팅의 3단계) –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한 7단계 수업 분석하기 * 수업의 특성 분류하기(촬영된 동영상을 보며 분석 시도) * 수업에서 드러난 좋은 점 이야기하기 * 수업과 관련하여 의문스러운 점 질문하기 * 수업에서 논의하고 싶은 점이나 주제에 대해 제안하기 * 수업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조언하기 * 학생들의 반응, 행동,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 개선사항 정리하기 • 컨설턴티의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보고서 작성(대표컨설턴트)
피드백	• 자신의 수업에 반영하여 실행하기 – 논의사항 정리하기 – 개선사항 확인 및 실천 방법 모색하기 – 개선된 방식으로 수업 실천하기 • 자신의 수업 동영상을 녹취하여 써 보게 함 – 수업 중 자신의 불필요한 말과 행동, 동선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 • 컨설턴티와 건설턴트 간의 좋은 인간 관계 형성 • 장기적 멘토링 관계 조성

II. 열매 맺기 – 이렇게 마무리 하였습니다(컨설팅 결과)

▣ 수업 컨설팅을 통한 성과(신규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 상기
- 준비된 수업 : 준비된 수업과 준비가 덜 된 수업의 차이를 스스로 인지함
- 교사로서의 긴장감과 교사 본연의 업무 충실
- 선배교사와의 만남
- 구체적 컨설팅의 효과
- 지도서와 교과서에 대한 재해석

▣ 컨설턴티와 컨설턴트 Win-Win 전략

▶ 컨설턴티 Win 전략

- 좋은 수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의 전환
-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발성의 원칙

▶ 컨설턴트 Win 전략

- 컨설팅 전문가로서의 역할
- 컨설턴트간의 협력자로서의 역할
- 컨설턴티의 조력자이자 지지자로서의 역할
- 컨설턴티와 함께 공부한다는 인식의 전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 사례집 수록 자료)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43

굴려라! 굴렁쇠 · 넘어라! 줄넘기 달려라! 인라인스케이트

신 계 성
거창 가북초등학교 교장

1.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거창군 가북면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전교생 30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여느 농촌 학교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활기조차 줄어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굴려라! 굴렁쇠 · 넘어라! 줄넘기 · 달려라! 인라인스케이트'는 학생들의 보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2.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굴렁쇠, 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로 구성된 3단계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활력 넘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간놀이 시간(10:30~11:00)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각 단계별 통과자에 대해 달인증과 3단계 통과자에게는 학교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세트를 선물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계	프로그램명	대상 및 인원	장소	운영시간	평가	비고
1	굴려라!굴렁쇠	전교생 30명	운동장	중간놀이 시간 (10:30~11:00)	매주2, 4주 수요일 중간놀이시간	
2	넘어라!줄넘기	1단계통과자	다목적실, 운동장			
3	달려라!인라인 스케이트	2단계통과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예정중)			

가. 굴려라! 굴렁쇠 달인

굴렁쇠 굴리기를 하여 매월 2, 4주 수요일에 코스별(운동장 코스, S자 코스, 달팽이코스)로 통과시험을 보게 하여 통과자에 대하여 달인증을 수여한 뒤 줄넘기 달인에 도전하게 하게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현재 28명의 학생이 굴렁쇠 달인이 되었습니다.

01

02

01 굴렁쇠 1
02 굴렁쇠 2

03

04

03 굴렁쇠 3
04 줄넘기 1

굴렁쇠 달인제 1차 평가 종합결과

1. 일시 : 2011년 4월 6일 수요일 10:30~11:00
2. 대상 : 전 교생 30명
3. 달인증 수여대상 : 6학년 5명, 5학년 3명, 4학년 3명, 3학년 3명, 2학년 2명 1학년 1명 (총 17명)
4. 불합격 대상 : 13명 다음주 수요일 중간놀이 시간에 2차 평가 실시

순	학년	이름	굴렁쇠 코스					달인증수여
			조정장		5자		달팽이	
1	6	김대현	○	-	○	-	○	-	달인(2011-1호)
2	6	류지성	X	X	X	X	X	X	전코스 불합격
3	6	박종환	X	X	X	X	X	X	전코스 불합격
4	6	변효재	○	-	○	-	○	-	달인(2011-2호)
5	6	진현중	○	-	○	-	X	○	달인(2011-3호)
6	6	김경선	○	-	X	○	○	-	달인(2011-4호)
7	6	김소연	○		X	○	X	○	달인(2011-5호)
8	6	이명진	X	○	X	X	○	-	5자 불합격
9	5	이상진	○	-	X	○	○	-	달인(2011-6호)
10	5	하종원	○	-	○	X	○	-	달인(201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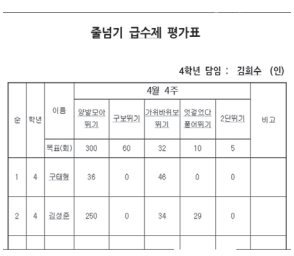
그림1. 굴렁쇠달인 제1차평가표

그림2. 굴렁쇠 달인증

그림3. 굴렁쇠 활동모습

나. 넘어라! 줄넘기 달인

굴렁쇠 달인증을 수여 받은 학생들은 줄넘기 급수제에 따라 연습을 하고 매월 2, 4주 줄넘기 급수평가에 따라 달인증을 수여받습니다. 중간놀이 시간 이외에도 틈틈이 줄넘기의 생활화를 통해 선·후배 및 동료들끼리 우애와 소속감, 책임감, 협동심 등 공동체 의식함양과 기초체력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2명의 학생이 줄넘기 달인이 되었습니다.



줄넘기 급수제 평가표

4학년 담임 : 김희수 (인)

순	학년	이름	4월 4주					비고
			앞발모아 뛰기	구보뛰기	가위바위보 뛰기	엇걸어다 풀어뛰기	2단뛰기	
		목표(회)	300	60	32	10	5	
1	4	구태형	36	0	46	0	0	
2	4	김성은	250	0	34	29	0	

그림1. 줄넘기급수제 4월평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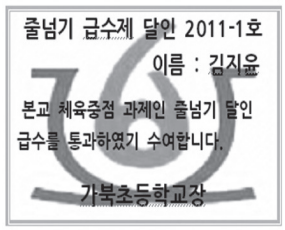


그림2. 줄넘기 달인증

그림3. 줄넘기 활동모습

3.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 유도할 수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즐겁게 굴렁쇠, 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 1단계 굴렁쇠 굴리기를 생활화함으로써 기초체력이 향상되었고,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운동 습관 형성 및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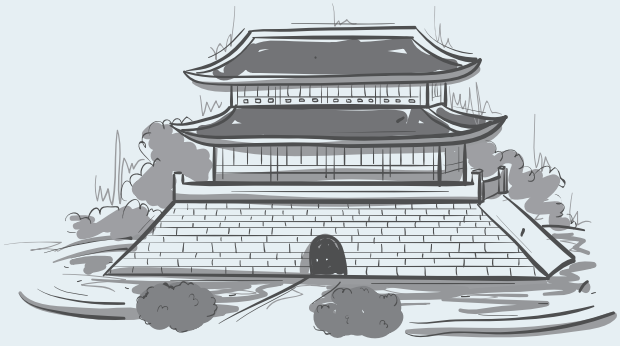
나. 2단계 줄넘기 급수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성취의욕과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켜 학교나 가정에서 줄넘기를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다 함께 만족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하고 활발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굴려라! 굴렁쇠 · 넘어라! 줄넘기 · 달려라! 인라인스케이트'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신장하고 바람직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학생만이 아닌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특색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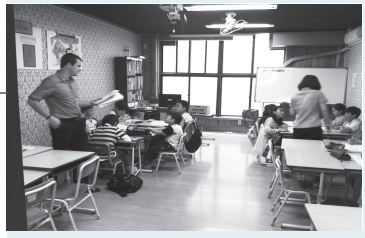
05 줄넘기 2
06 줄넘기 3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46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김 동 진
김해 삼계초등학교 교장

01

02


03

01 우듬지 수학반 수업 모습
02 우듬지 영어반 원어민 수업
03 특기 적성 피아노 수업 모습

우리나라의 사교육 실태라는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이에 말 그대로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자식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픈 부모 욕심에서, 그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장된 불안감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가?' 라는 명제에 대한 고민은 생략하고 아이들은 학원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특기 · 적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공교육만으로는 김연아 같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사교육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학부모의 고통과 실제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하고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계초등학교가 교과부 지정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를 운영한지는 햇수로 3년입니다. 처음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 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그 이름부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난받으며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3살이 되었으니, 어떻게 잘 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교육 절감으로 명품학교로 거듭난 삼계초등학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삼계초등학교는 교과부 지정「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의 비전은 사교육비 절반, 교육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 수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사교육 수요가 많은 교과 심화, 보충반 강좌(우듬지 영어, 우듬지 수학, 디딤돌 교과종합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우듬지 영어반은 주 5일 수업으로 어학원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주 2회 원어민 수업을 실시함에도 일반 어학원보다 30~60% 낮은 가격의 수강료로 학부모의 호응 속에 2011년에는 2개 반으로 증설하였습니다. 낮은 수강료지만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강사 공개 채용, 월별수업일지 관리, 주기적인 교사 · 학부모의 모니터링 외에도 수시로 전

자메일, 인터넷카페,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 방과후 코디, 담당 교사와의 협조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개설을 희망하는 피아노, 수학에 대한 방과후교실을 신설하여 저렴한 수강료로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돌봄 교실을 마련하여 방과후 보호기능과 더불어 EBS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과후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위험에 대비하여 어린이 안심서비스,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배움터지킴이, 하교지도교사(시간외근무, 교사 윤번제)를 배치하여 안전한 하교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강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2~6학년까지 학습 부진아동을 위한 특별보충과정은 학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가 맡아서 지도한다는 점, 부진아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지도 계획 수립, 지도 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로써의 일이 아니라 수당을 받고 책임감 있게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아동을 구제하고 학업성취도도 신장시키는 결과를 낳아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초부진아동은 매일 수업을 통해 실력을 보충해야 하므로 학습도우미, 학습보조인턴교사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을 보충하는 활동 외에도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특기를 가지고 있는 교사가 해리포터 영어원서읽기, 미술 데생, 축구, 키쑥쑥튼튼요가, DIY바느질 동아리를 운영(2011학년도 참여 인원 58명)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사 강사비를 사업 예산에서 지출하므로 최소한의 수강료로 삼계초등학교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질 높은 수업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키쑥쑥튼튼요가 활동모습

미술 데생 동아리 활동모습

축구 동아리 활동모습

올해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비부담 1순위 과목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절감 대책으로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 영어 마을 체험학습, 영어 방과후 활동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어 마을 체험학습은 6월에 6학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배운 내용과 선수 학습 자료로 미리 학습을 하여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것이며, 학습자들이 영어권 문화에 쏙 빠지는 체험을 통해 영어라는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물론, 필요한 상황에서 영어를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얻는 재미는 학생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은 공고, 접수, 설명회 개최, 선정 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영어 학습 효과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가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였는데,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면 더 근본적인 사교육절감 대책이 될 것입니다. 도입기이기 때문에 학습성과가 우수한 아동들에게는 학교장상 시상 및 상품 수여 또는 자기 학습 인증서도 수여할 계획이지만 그 보다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 내적동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 절감 노력의 결과로 본교 학생 1인당 평균 25.1만원이던 사교육비는 1년만에 19.8만원으로 21.1%를 절감함으로써 1차년도 교과부의 사교육 절감 목표치인 '20% 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한 달 뒤인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3차년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 선정 여부를 떠나서 예산 없이도 사교육절감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학교의 자립도를 키워나가는 숙제가 남을 것입니다. 사교육 절감 목표는 교육의 세 주체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교사의 노력,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 학습 주체로서 학생의 각성이 앞으로도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절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발로 뛰는 진정한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시는 김동진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업무 과중을 인내해 나가시는 본교 선생님께도 마음으로부터의 박수를 보냅니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49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영산배움터

조 재 수
창녕 영산초등학교 교장

전통문화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가 열렸어요!

만국기 펄럭이는 오월의 푸른 하늘 아래 어린이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이 흐르는 운동장,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영산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날이다.

본교는 창녕 영산에 위치한 개교 104주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교생 300여 명 가량의 농촌학교이다. 이 작은 농촌 학교에서 올해 색다른 봄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전통문화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운동회와는 달리 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시연과 무형문화재 제26호인 영산줄다리기 경기가 영산초 풍물패 '맥놀이'의 신나는 풍물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전통문화 한마당 잔치였다. 영산 지역민과 본교 4,5,6학년 학생들의 힘을 모아 시연한 영산쇠머리대기와 영산줄다리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이다.

본교의 운동회가 영산 지역에서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은 큰 이유는 지역의 자랑거리인 중요 무형문화재를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시연해 보는 시간을 지역민과 함께 꾸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교 학생들은 영산의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 무형문화재를 직접 배워봐요!

영산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 쇠머리대기와 제26호 영산 줄다리기 전수자가 있는 전통문화의 고장이다. 본교에서는 작년에 이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산줄다리기 보존회의 전문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3,4,5,6학년 학생들에게 영산줄다리기의 유래와 방법, 줄꼬기 등에 대해 강의를 한다.

평소에 영산줄다리기에 대해 막연히 알고만 있던 학생들은 영산줄다리기 전수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그 전통을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있다.

01

02

03

01 영산쇠머리대기
본교 어린이 시연 모습
02 영산줄다리기 경기 모습
03 무형문화재전수교육 모습

특히, 영산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을 직접 꼬아보는 실습도 해 봄으로써 재미있는 전통문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흥겨운 우리가락을 배워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익히고 있다면 음악 교과 시간에는 전문 국악 강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통 국악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음악 교육과정 중 담임교사가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전통 국악 영역에 국악 강사를 배치하여 쉽고 재밌는 국악수업을 하고 있다. 국악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현 교육과정의 추세에 현장 교사들은 특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악 수업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악 전문강사의 국악 지도는 본교 학생들에게 전통 국악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04

05

06

지역과 함께 하는 영산초 풍물패 '맥놀이'

전통을 이어가는 본교의 또 하나의 자랑은 풍물패 '맥놀이'이다.

'맥놀이'는 본교 방과후학교 풍물반 학생들로 조직된 풍물패로서 방과후학교 시간에 틈틈이 배운 실력으로 풍물대회 참가, 지역문화 행사 참가, 지역 봉사활동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5월 초 영산 무형문화재 보존회에서 개최한 영산쇠머리대기와 영산줄다리기 무형문화재 발표회에 사전 공연팀으로 참가하여 영산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으며,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영산면 경로위안 잔치'에 참가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께 풍물가락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밀양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재 공연에도 참가하여 영산초 풍물패 '맥놀이'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이는 멋진 시간을 보냈다.

전통과 함께 자라요!

긴 학교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영산초 학생들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국악 교육,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교육 등을 통해 영산의 얼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가고 있다. 우리의 문화를 바로 알고 계승하는 것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자세를 지니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영산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오늘도 녹음이 짙은 영산초 교정에는 풍물가락이 멋들어지게 흘러나오고 있다.

04 영산줄다리기 줄꼬기 실습
05 풍물패 '맥놀이' 경로위안잔치 참여 모습
06 풍물패 '맥놀이' 영산줄다리기 행사 참여 모습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51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 실현

김 이 천
창원 동부초등학교 교장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21세기는 정보화 · 세계화의 무한 경쟁시대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 국가적인 요구에 맞추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년군 · 교과군 집중이수제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교과시수 증감 20% 자율범위 확대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추구,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한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 · 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개성 신장, 여가 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의식 함양 등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크게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누어 배려와 나눔의 실천 활동을 주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을 운영하여 창의성 신장(정보품, 독서품, 국제품)과 인성 교육(봉사품, 건강품)에 기여하는 교육과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01

02

03

01 정보품
02 독서품
03 국제품

2.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 이란?

최고를 지향하는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은 다음과 같다.

D – 정보품 (Digital power) – 정보활용능력인증제

-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한 컴퓨터교육
-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정의 과정 이수

04

R – 독서품 (Reading power) – 독서 인증제

- 사제가 함께하는 아침 10분간 독서활동 전개
- 학년별 권장도서 80~50권 이상 읽기
- 동부 독서 인증제 실시
- 다양한 독후활동 및 독서행사 실시

E – 건강품 (Exercising power) – 줄넘기 급수 인증제

- 중간체조 시간, 체육시간을 이용한 꾸준한 줄넘기
- 방과 후 성취목표 도달 여부를 상호 확인 – 담임교사가 기록
- 5분 달리기 운동 실시 – 기초체력 향상 및 준비운동

A – 봉사품 (Attentive mind) – 가족 · 친구 · 이웃 사랑

- 학년 · 학반별 봉사활동 내용 선정
- 특별활동 및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05

M – 국제품 (Multinational power) – 영어 · 한자능력인증제

- 1~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한자교육, 3~6학년 영어교육 실시
- 전교생 대상으로 동부 한자, 영어 인증제 실시
- 교내 한자, 영어 능력 경진대회 실시

04 봉사품
05 건강품

3. 최고가 되기 위한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

위와 같이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은 정보품, 독서품, 국제품을 통해 진로 개척을 강조하고,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구체화하였고 봉사품, 건강품 운영을 통해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덧붙여 이런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는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독서를 생활화하며 건강 체력 증진으로 '하는'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들 각자의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의사소통 중심의 국제화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동부5품제' 두드림(Do dream)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달 성취기준이 학년 교육과정과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6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각 품별, 영역별로 기초 기본 소양을 익힐 수 있어서 더욱 더 내실 있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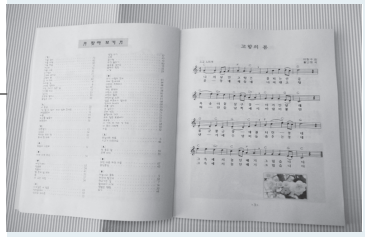
오늘도 우리는 '동부가 최고야!'를 외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54

동요 부르기를 통한 고운 심성 기르기

배 재 권
창원 하북초등학교 교장

01

02


03

01 '동요야 놀자' 표지
02 '동요야 놀자' 악보
03 학급 동요 발표회

Ⅰ. 들어가며

2011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특색과제는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이다.

본교는 올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노래하는 학교' 자율시범학교로 지정받아 '동요 부르기를 통한 고운 심성 기르기' 라는 과제 아래 동요 부르기 활동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여 다양한 동요 부르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교육공동체와의 연계활동으로 고운심성 기르기를 실천하고 있다.

Ⅱ. 펼치며

가. 필수동요 선정 및 동요책 발간

아동들이 평소에 즐겨 부를 수 있는 동요를 선정하여 「동요야 놀자」 라는 동요집을 발간하였다. 「동요야 놀자」 동요집은 초등학교 필수동요 5곡, 저학년(1~3학년) 필수동요 5곡, 고학년(4~6학년) 필수동요 5곡을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공모를 통하여 정하고, 학년별 필수동요 10곡씩은 학년 단위로 담임 선생님이 선정하였다. 또한 외국동요와 교사 추천동요도 수록하여 총 90여 곡의 동요를 악보로 엮고, 「동요야 놀자」 CD로도 만들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동요야 놀자' 동요집을 이용하여 수요일 5교시를 특별활동 시간으로 편성하고 4~6학년 학생들이 한데 모여 가창수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학교 특성화 활동으로 '동요 20곡 외워 부르기'를 실시하고 있다.

나. 음악 방송실 운영

음악 행사나 음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 장비, 강당, 교실의 음향 상태와 스피커, 마이크를 정비해서 원활하게 음악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학급별 음악 특색을 살려 학년별로 격주 토요일 동요 방송을 실시하고 방송조회를 통하여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요방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으로 아동들의 하루 생활을 보다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들이 동요에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요일	시 간	방송내용	비 고
월	08:50~09:10	전교 및 학급 음악 조회	• 매월 셋째 주 전교 음악조회 • 격주 월요일 학급 음악조회(2, 4주)
화 ~ 금	13:00~13:10	동요 신청곡 방송	• 교실 및 음악공원 방송
	08:50~09:10	동요 방송	• 학년 필수곡 방송(‘동요야 놀자’ 동요집) • 1~3학년 : 월, 수 4~6학년 : 화, 목
	13:00~13:10	동요 신청곡 방송	• 교실 및 음악공원 방송
토	08:50~09:10	음악 방송(격주)	• 학년별 동요 자랑대회(2, 4주)

다. 느티나무 음악 공원 조성

학교 느티나무 공원을 음악 공원화하여 하북 어린이들은 교정에 있는 느티나무 음악공원에서 도란도란 둘러앉아 한 목소리로 언제든지 동요를 불러서 밝고 맑은 심성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민들에게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음악 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라. 음악조회를 통한 동요 부르기

1) 전교 음악조회

전교생이 함께하는 음악조회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 학년과 계절을 고려하여 「동요야 놀자」 동요집에서 1곡을 선정하여 동요 부르기와 악기 연주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음악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전교생이 함께 하는 전교 음악 조회 활동은 아래와 같은 연습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달의 곡 선정 ➡ 노래 및 기악 연습 ➡ 학급별 연습 ➡ 전교생 합주 및 합창

전교생이 함께하는 음악조회 운영 프로그램

2) 학급 음악 조회

학급 음악 조회는 매주 둘째 넷째주 월요일에 기존곡을 개사하거나 창작하여 인사곡을 부르고, 반가를 정해서 부름으로써 반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04

05

06

04 느티나무 음악 공원
05 전교 음악 조회
06 학생 합창단 연습(노래 반주기)

평소에는 친구 노래 불러주기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나누며, 안정된 정서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마. 음악관련 동아리 활동 (교사, 학생)

방과후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 동아리 활동 부서로 합창부와 기악부를 조직하여 수업 시간 전 틈새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동요를 즐겨 부름으로써 음악과 친해지도록 하며, 맑고 고운 심성을 기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교사들도 격주 수요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교사합창단을 운영함으로써 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래를 즐겨 부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바. 가족 합창제 연계활동

교육 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노래 부르기를 생활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학부모 합창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합창제를 통하여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동요에 대한 관심을 가정에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북동요제와 작은 음악회를 열어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음악표현 무대를 계획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음악 행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07

08

09

Ⅲ. 맺으며

동요 부르기 활동은 자연스레 교육과정 안에 녹아들어 연중 노래하는 학교로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활동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동요 부르기 대회 등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과 자아성취감이 길러지고, 합창을 통해 협동심과 준법성이 높아지며 고운 심성 함양에도 효과가 클 것이다.

07 학생 합창단
08 교사 합창단 연습
09 학부모 노래 자랑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57

전/문/가/초/대/석

시험불안으로 시험 망치고 학습의욕마저 사라져가는 아이들

변 경 오
한국학습클리닉창원센터 소장

중학교 2학년인 박모군은 시험불안으로 고생하는 아이였다. 평상시에는 별 다른 모습이 없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자주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며, 때로는 심한 열이 나기도 하고 몸살이 나서 공부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시험기간마다 시험불안으로 인해서 시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놓고도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하여 성적에 대하여 실망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 공부에 대한 실망감도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었다. 시험기간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게 씻은 듯이나으며, 시험불안으로 인하여 평균 점수차이가 20점이 넘나들고 있다고 한다. 박모군의 어머니는 이럴때마다 좋아지겠지 하며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제는 더는 보고 놔둘 수가 없어 주변의 권유로 센터를 찾아오게 되었다.

박모군의 학습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클리닉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단된 학습유형은 관계협동형이었다. 학습의 전단계, 중단계, 후단계 중에서 학습후단계의 시험불안조절력이 낮았으며, 전반적 자신감도 낮았다. 학습유형중에서 관계협동형 아이들은 내성적인 성격소유자들이 많고 학습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다. 맘속에 스트레스를 쌓아놓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학습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며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도 자신이 떠안고 살아간다. 그렇기에 자신감이 매사에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도 학습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양에 비해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시험불안! 자신감도 사라지게

시험불안은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시험불안을 방치하면 할수록 더욱 학업에 대한 자신감은 사라진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급적이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편이 좋다.

시험은 학업성취의 확인과 발전의 계기

시험이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한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을 치른다. 특히, 학생 때는 정기적인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한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노력과 지능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라고 한다. 시험을 단지 평가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시험을 치르는 일은 아주 힘이 들고 그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커진다. 하지만 시험을 학업 성취의 확인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시험에 임하는 자세와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부정적 태도 대 긍정적 태도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학생들은 대부분 시험불안을 함께 가진다. 그것으로 인해 실제의 능력보다 더 낮은 시험결과를 얻게 된다. 낮은 시험결과는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다음 시험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시험에 대한 태도는 자신, 즉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험결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자녀들의 시험에 대한 태도를 결정 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시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시험을 현재 자신수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로 여기고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잘하지 못하는 과목을 확인하는 시험평가를 통해 다음 공부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는 정보로 활용한다. 평소에 학습전략에 따라 공부하고 시험을 통해 평가하여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긍정적 태도를 갖기 위해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시험결과에 대한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중고등학교 시기의 시험은 학습과정이므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한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를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 시험을 치고 나면 가끔 시험결과에 집착하여 시험지를 찢어버리거나 아예 보기 싫다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 시험지를 없앤다고 결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만족하지 못한 시험결과로 인해 자학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기 보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여 원하는 성적을 얻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부모 역시 시험결과를 가지고 자녀를 나무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시험결과를 가지고 자녀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보다 상처주는 말을 삼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혹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아이와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시험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가족의 사랑과 함께 한 '스승의 날'

김 용 운
김해 수남초등학교 교장

5월 13일, 한 달의 기나긴 여정 속에 수남초등학교의 '스승의 날 007작전'이 진한 감동을 남기며 마무리 되었다.

'스승의 날 007작전'. 수남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 증진과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비밀 프로젝트!

나는 한 달 전 부터 바쁘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교사들의 배우자의 이름으로, 또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로써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아들, 딸에게 사랑의 편지와 추억이 될 만한 선물 준비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비밀이라는 부탁과 함께.....

5월 13일. 행복한 기다림 속에 공식적인 '스승의 날'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도헌장 낭독으로 시작된 행사는 일상에 지친 선생님들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시낭송과 동화구연, 우영자 전교육장님의 축하메시지와 노재길 전 교육위원님의 '참된 교사의 길'이란 주제로 훈훈한 특강이 있었다.

드디어 비공식적인 '스승의 날' 행사. 방과후 교사들의 아름다운 연주와 수남 학생의 예쁜 노래로 2부의 서막을 올렸고, 본교 교사들로 이루어진 밴드의 신나고 경쾌한 드럼과 기타 소리로 행사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가족이 있어 지금의 수남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수남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남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한분 한분씩 부르면서 가족들이 준비한 사랑의 메시지와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다. 선생님들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와 조심스럽게 선물 포장지를 뜯는 모습, 가족이 쓴 편지를 한 줄씩 읽는 모습에서 한 달의 기나긴 '스승의 날 007작전'이 마무리 되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

항상 함께 하지만 '수고한다, 사랑한다.' 등의 말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오늘의 비밀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학교 경영 철학.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수남초등학교 아이들은 5월 13일 이후 더욱 더 행복할 것을 자신하며 수남초등학교 5월 13일의 학교경영을 마감한다.

참여 마당 교원 마당

수업연구대회 '축제의 장' 승화를 위하여

조 영 봉
경남교육연수원 장학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사의 질은 수업의 질을 능가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하기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업과 관련된 많은 다양한 연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수업에 관련된 행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 하나가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주관으로 각종 수업연구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그러한 좋은 취지와는 달리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만큼의 성과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교원 모두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연구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난해 7월 장학월보에 소개를 한 바 있다. 이제 수업연구대회 시기가 다가온 시점에서 그동안 수업에 많이 참가해 보고, 수업대회 심사도 해보고, 그리고 수업연구대회에 교사를 지도하여 대회에 참가시켜보면서 생각한 점들을 운영 측면에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개선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흔히 수업에는 왕도가 없다고 한다. 그 말은 그만큼 수업이라는 것이 어렵고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래서 교육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업을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수업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수업대회를 하여 등위 내는 일 자체가 힘든 일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등위가 나올 수 있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좋은 수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수업연구대회가 교직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교사들이 그 학교 연구부장이나 학교의 인적자원 능력으로 다듬어진(?) 각본대로 한 시간 수업을 하는 대회로 성격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회를 주관하여 운영해야 하는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하는 면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장학진에 있으면서 직 · 간접으로 경험도 해보아서 행정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업연구대회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이왕 대회를 함에 있어 교원 모두가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운영상의 개선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업연구대회에 중견교사나 고경력교사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다. 수업연구대회가 저경력 교사들의 수업실기대회로 전락하거나 학교의 인적자원의 역량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견교사 이상의 교원들이 많이 동참할 때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안 쓰기 대회에 글을 천천히 쓰거나 필체가 좋지 않은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가능하다면 자신이 쓴 지도안을 바탕으로 본시수업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수업대회가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수업자나 수업참관자, 심사자 모두가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수업에 대해 한 수 배운다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업자는 수업 외적 화려함과 코메디적인 쇼 맨쉽 보다는 수업의 본질, 즉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학생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수준별 학습의 개별화와 최종적으로 수업의 목표에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 학교 중간관리자와 수업참관자는 작년 7월호에 자세하게 안내하였듯이 백화점식 수업참관이 아닌 한 과목을 4시간 동안 심사위원의 관점으로 보면서 비교 ·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심사자 또한 수업을 배운다는 마음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성스러운 대회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마음으로 공정과 신뢰와 수업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적 기계적 측정으로 대회의 우열을 정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나 말썽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겨 대회 등에서 심사하는 방식을 수업대회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보았으면 한다. 우선 심사위원 수를 최소한 5~7명으로 늘려서 상위와 하위 점수를 제외시키고 평균을 내어 등위를 정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이 보는 관점도 좀 단순하고 적시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동기유발, 수업목표 안내 등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사표에 내가 본 과정에 대해 절대평가 형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교실을 나오면서 심사위원이 날인을 하여 바로 집계위원에게 넘겨주고 집계 위원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집계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그러면 수업을 본 사람이나 수업을 한 당사자나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보완점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면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국가적으로도 큰 행사를 함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수당보다는 내가 교직 수업축제의 장에 그 분야에 전문인으로 위촉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부담없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진정한 수업의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수업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부담으로 사양하는 분위기가 많다. 수업을 모두 보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여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신뢰와 공정성에 흠이 생길 소지가 있다. 내가 전문가적인 자세로 그 수업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관점에 따라 절대평가를 내린다면 아무런 부담없이 심사위원도 수업대회 축제의 장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을 하나의 연수로 여길수 있으리라 본다.

참여마당 학부모 마당

작은 학교만의 특별한 운동회

최 연 심
거제 외간초등학교 학부모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걱정을 하며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니 '총동창회와 함께하는 외간 어울림 한마당' 학교 시계탑 중앙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의 문구가 우리의 축제를 한껏 들뜨게 만들고 있었다.

약간씩 내리는 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펄럭이는 만국기, 운동장 귀퉁이에 서있는 천막들. 그 사이로 분주히 움직이는 동창회원들과 선생님, 설레는 모습으로 서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웃음 가득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되어 우리 외간의 잔치 한마당은 시작되었다.

교감 선생님께서 개회를 선언하고 교장선생님의 대회사, 동창회장님의 축사들도 외간 가족들이 하나 된 느낌이라 그런지 신선했다.

준비체조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새천년 체조를 하는 모습은 학부모들을 저절로 뒤에서 같이 뛰게 할 만큼 씩씩하고 힘찬 모습들이었다. 총동창회 회원들, 마을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학부모가 철쭉, 동백 팀으로 나뉘어 잡아당기는 줄다리기는 그 줄 안에 우리 모든 외간의 힘이 들어있음을 한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아이만 업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를 업고 힘껏 뛰는 외간의 어른들 모습 속에서, 힘찬 풍물놀이의 장단에서, 그리고 다 같이 모여 흥겹게 포크댄스를 추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 속에서 우리만의 정겨움과 가족애가 있었다.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전교생 이어달리기는 작은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기였다. 전교생 모든 아이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과 그 아이들을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같이 뛰는 우리 외간의 모든 어른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로를 너무 잘했다고 다독여주는 모습은 큰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작은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커다란 두 원을 아이들과 모든 어른들이 만들고 그 사이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앞세우고 동문대표와 교장선생님이 공을 굴리며 힘차게 뛰는 모습. 그리고 공이 다른 길로 갈라치면 먼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손을 뻗으며 도움을 주는 모습. 이러한 우리의 아우러짐이 현재의 외간초등학교를 만들어낸 원동력일 것이다.

작은 학교, 흔히 우리 학교를 그렇게 부른다. 교실도 작고 건물도 작고 아이들 숫자도 적고, 다른 학교에 비해 다 작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누구보다도 오고 싶어 하고 즐거워한다. 큰 학교처럼 훌륭한 놀이터가 있지도 않다. 큰 학교처럼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하나같이 예전에 다니던 학교보다도 행복해한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학교를 잊지 않는 외간의 동문들이 있고 모두가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고민하고 웃어주는 우리의 선생님들이 있어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두가 마을의 들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느끼는 아이들이기에 그들의 웃음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여유롭고 행복하다.

외간의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한다

"외간 사랑합니다. 그 학교가 있어서 우린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참여 마당 학생 마당

나의 선생님

신 종 원

진해 안골포초등학교 5학년 5반

해마다 스승의 날이 오면 나의 고마우신 담임선생님들이 한 분씩 머릿속에 떠오른다.

나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선생님들이지만 1,2학년 때는 사실 너무 어려서 특별한 기억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올해 스승의 날이 되니 특히 작년 4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서광미 선생님이 많이 떠오른다.

서광미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을 잘 이해해주시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시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다. 4학년이 되어서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에서의 수업이 즐거워졌다.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 게임처럼 즐겁게 가르쳐 주셨으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곤 하셨다. 공부를 하면서 골든벨 퀴즈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잘 그린 친구들을 골라 이름을 적은 뒤 빙고놀이를 한다든지 공부가 마치 놀이고 게임이었던 것 같았다.

우리 반 점수가 10점을 모으면 하루 수업 중 한 시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기억에 남는다.

나는 딱히 장래희망이 없었지만 서광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장래희망도 생겼다. 서광미 선생님께서 나에게 꿈을 가지게 해 주신 점과 수많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신 점, 그리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해 주어 시험 성적이 오르게 해 주신 점.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나중에 선생님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생활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선생님을 찾아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6월장학-최종수정 2011.5.31 12:38 PM 페이지65

바보에서 영재가 된 한 아이

이 강 재
창원명곡고등학교 교사

「한 아이」라는 책의 주인공은 쉴라라는 여섯 살짜리 여자아이다. 쉴라는 이웃의 세 살짜리 아이를 유괴해서 숲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은 채 불을 지르는 일을 벌인 끔찍한 아이였다. 쉴라는 이미 사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 찍혔고 곧 주립병원으로 보내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평생을 문제아에 범죄자로 살아가야 할 운명에 놓인 쉴라는 그러나 다행스럽게 토리 선생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처음 쉴라를 학교에 데려올 때 토리 선생님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토리 선생님은 학부모들을 설득해 쉴라를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 학교에 들어온 후에도 쉴라는 여러 사고를 저질렀지만 토리 선생님은 쉴라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다. 결국 쉴라는 토리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숨겨져 있던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것도 알게 되었다. 그에 앞서 토리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을 맡아서 개개의 학생에게 관심을 쏟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심한 문제아로만 알려져 있던 쉴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정환경과 지금까지의 성장배경에 대해 조사해서 쉴라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정서장애를 갖게 된 것을 알아내었다. 거기에다 덧붙여 보통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영재아라는 것도 알아내어 그에 맞게 실제 나이보다 고학년의 교육과정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내가 쉴라와 같은 아이를 맡게 된다면 과연 토리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우선 쉴라는 교실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등 폭력성이 강한 학생이었다. 이런 학생을 내가 맡았을 때, 매를 들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내가 쉴라를 맡았더라면 쉴라가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학생을 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타임아웃 공간인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두었다가 시간이 되면 예정되어 있던 병원으로 보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랬다면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쉴라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든 책임이 나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많은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과연 내가 교사가 되어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만났을 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이름도 알아듣지 못하고 교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는 중증 장애 학생을 보면 그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기보다는 단순히 그 학생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돌보는 보육자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이 컸다.

올해 처음으로 교직에 들어와서 보니 우리 학습도움반에도 쉴라와 비슷한 자폐증을 가진 학생이 있었다. 올해 2학년인 영석(가명)은 등하교를 할 때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작년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에서 크게 놀란 이후에는 낯선 사람이 있는 환경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자신의 원적학급에도 가지 않고 학습도움반에서만 수업을 듣는다. 학기초에는 처음 보는 나를 경계하여 내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리거나 엎드려서 듣지 않으려 했다. 처음 영석이의 말을 들은 것은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영석이에게 꾸준히 먼저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던 어느 날 드디어 영석이가 나에게 말을 했다. "물". 물을 달라는 그 한마디에 나는 기뻤고 영석이도 쉴라와 같은 천재적인 면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걸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영석이가 천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은 슬펐지만 세상과 단절한 채,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학생을 노력만 하면 세상과 소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영석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영석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작품명 : 기와무더기

이제 막 어느 지붕에서 내려온 것일까.
조금 후에 어느 지붕으로 올라가려는 것일까.
편리함과 철옹성같은 견고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기와를 올리며
그 집의 행복을 빌었을, 옛 기와장이의 마음을 생각하다.

안 종 혁
– 현) 경남은혜학교 교사

경남은 지금 독서 중!

슬로건 공모 최우수작 : 김은미

Dream Maker 꿈나르미 경남교육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교육

도민 여러분!

오늘은 TV를 잠시 끄고
가족 독서 시간을
가져 보는건 어떨까요?

- 책 속에 꿈 책 너머 희망
- 북(book)적 북(book)적! 경상남도
- 함께하는 책 읽기 함께여는 희망경남
- 펼쳐보! 책속 행복 누려보! 행복 경남
- 책 읽는 기쁨 나누는 행복
- 책을 내곁에 미래를 내품에

'책 읽는 경남'은
도민 모두가 참여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